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연준의 새 프레임워크, 인플레이 우  
려 속 시험대에 오르다
  - ◇ (초점)-8 월 금리인상 가시권(?)..한은 총  
재 매파색 강화에 들쭉이는 이자율시장
  - ◇ (시장진단)-원화, 위안 보폭 커질 때마다  
연동성 더 뚜렷..위안 전망 기웃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 근처의 아파트 건물이 붕괴한 모습으로, 현재 사망자와 실종자가 150 명을 넘었다. (로이터/마르코 벨로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6월25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27.7	0.4%	-3.7%	+6.5%	유로	1.1933	0.6%	-2.3%	+8.9%
100엔 대비	1,017.2	1.3%	3.4%	+1.1%	엔	110.77	-0.5%	-6.8%	+5.2%
유로 대비	1,345.0	0.1%	-1.4%	-2.3%	위안	6.4722	-0.4%	0.9%	+6.7%
위안 대비	174.53	0.8%	-4.7%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4,433.84	3.4%	12.5%	+7.2%
코스피	3,302.84	1.1%	14.9%	+30.8%	나스닥	14,360.39	2.4%	11.4%	+43.6%
코스닥	1,012.13	-0.4%	4.5%	+44.6%	S&P500	4,280.70	2.7%	14.0%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703.45	1.1%	6.2%	+19.8%
국고채 3Y	1.441%	12.8bp	46.5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764%	8.6bp	42.9bp	-14.5bp	미국채 2Y	0.268%	1.6bp	14.7bp	-144.0bp
국고채 10Y	2.100%	5.9bp	38.7bp	+3.0bp	미국채 10Y	1.524%	8.1bp	61.2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74.05	3.4%	52.6%	-20.5%	한국 5Y	18.1bp	-0.3bp	-3.9bp	+0.1bp
금(현물)	1,780.34	1.0%	-6.2%	+25.0%	일본 5Y	16.6bp	-0.2bp	1.6bp	-4.5bp
TR상품지수	2,937.10	0.3%	9.6%	+7.8%	중국 5Y	35.7bp	-0.7bp	7.7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6월 28일(월)>

- 금감원, 5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14:00)
- 기재부, 부총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16:00)

### <29일(화)>

- 기재부, 뉴욕·런던 투자자 대상 비대면 한국 경제설명회 개최(15:30)
- 한은,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 <30일(수)>

-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 통계청, 5월 산업활동동향(08:00)
- KDI, 북한경제리뷰(2021. 6)(12:00)
-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현안 등 유관기관 회의 개최(12:00)
- 한은, 1분기 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16:00)

### <7월 1일(목)>

- 산업부, 6월 수출입동향(09:00)

### <2일(금)>

- 통계청, 6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심의 등)(09:00)
- 기재부, 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5: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6월 28일(월)>

- 미국 6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 경기지수 (23:30)

### <29일(화)>

- 일본 5월 실업률 (08:30)
- 일본 5월 소매판매 (08:50)
- 유로존 6월 기업환경지수 · 경기체감지수 · 소비자신뢰지수 최종치 (18:00)
- 미국 4월 주택가격 (22:00)
- 미국 6월 소비자신뢰지수 (23:00)

### <30일(수)>

- 일본 5월 산업생산 잠정치 (08:50)
- 중국 6월 NBS 제조업 · 서비스업 PMI (10:00)
- 일본 5월 건축주문 · 주택착공 (14:00)
- 유로존 6월 CPI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6월 ADP 전국 고용동향 (21:15)
- 미국 6월 시카고 PMI (22:45)

### <7월 1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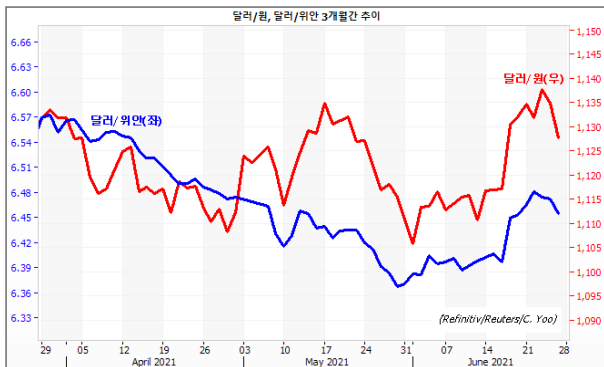
- 일본 2분기 단칸 대형 제조업지수 (08:50)
- 일본 6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09:30)
- 중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치 (10:45)
- 유로존 6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치 (17:00)
- 유로존 5월 실업률 (18:00)
- 미국 6월 챌린저 해고건수 (20: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마켓 제조업 PMI 최종치 (22:45)
- 미국 5월 건설지출 (23:00)
- 미국 6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23:00)
- 홍콩 휴장

### <2일(금)>

- 유로존 5월 생산자물가 (18:00)
- 미국 6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 실업률 (21:30)
- 미국 5월 내구재주문 수정치 · 공장주문 (23:00)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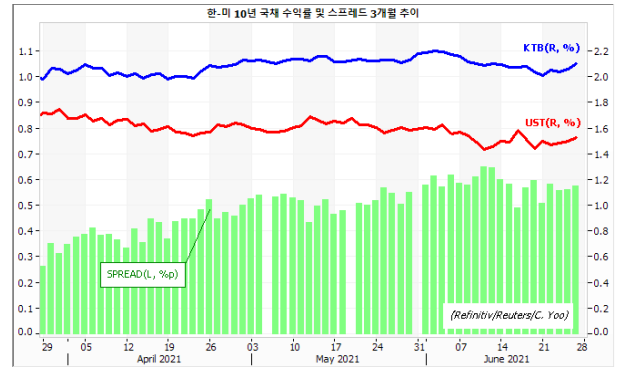
##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지난주 박스권 상단 이탈에 실패한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를 앞두고 레인지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20-1135 원이다.
- 달러 방향성이 아직 선명하지 않은 만큼 당분간 달러/원은 박스권내 머물며 주말에 나올 미국 고용지표를 대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6월 연준 회의 이후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를 둘러싼 시장 긴장감이 높은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 결과에 대한 시장 관심은 뜨겁다. 물가 상승이 지속성을 가질 것이라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진 이후 고용 회복 여부는 연준 정책을 가능하는 최대 변수이기 때문이다.
- 이같은 지표 확인 이후 글로벌 달러가 단기 방향성을 굳힐 수 있는 만큼 이에 앞서 원화의 굽직한 방향성 거래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주는 5월 산업활동동향(30일), 6월 수출입 잠정치(7월 1일), 6월 소비자물가동향(2일) 등 국내 핵심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다.
- 한국은행이 연내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을 선명하게 시사한 만큼 원화를 둘러싼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될 수 있다.
- 이에 더해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코스피에 대해 외인들의 의미 있는 사자세가 포착된다면 달러/원의 일시적인 반락 가능성도 있다.
- 하지만 관건은 글로벌 달러 행보다. 달러/원의 기술적 지지선들이 모두 1120 원 부근에 포진해 있다. 이를 넘어서려면 달러의 교통정리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30일에는 올해 1분기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조치 내역이 공개된다.

##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 여파로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반기 말 기관들의 실적 방어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쓸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이주열 총재의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 표명 이후 시장 참가자들이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하면서 지난주는 2년, 3년물 위주로 금리 상승폭이 확대된 한 주였다.
- 문제는 미국 국채금리다. 미국 국채시장에선 최근 수급상 반전이 일어나며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수급 분위기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가뜰이나 국내 단기물 시장이 불안한 시점이어서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에 따른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
- 미국 국채시장의 가능성자는 다음 달 2일 발표되는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될 수 있다. 이번 고용 보고서는 3-5월의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줄어든 상황에서 향후 흐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 국내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주목할 부분이다. 30일에는 통계청이 5월 광공업생산 지표를 발표하고, 다음 달 2일에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공개된다. 물가가 과연 5월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다음달 1일에는 한국의 6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된다. 물론 현재까지는 반도체와 자동차, 무선통신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수출 호조세가 하반기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힌트다. 특히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업황이 재고 증가 등의 역풍을 뚫고 수출 개선 흐름을 책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분석)-연준의 새 프레임워크, 인플레이 우려 속 시험대에 오른다**

워싱턴, 6월 22일 (로이터) - 작년 연방준비제도는 고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조심스럽게 전환했지만, 현재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정책 입안자들이 많아지면서 일자리 우선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연준은 10개월 전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지 않는 한 고용을 가능한 최대로 확대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내놓았고, 모두가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에 대한 표현을 모호하게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접근법의 한계는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석 달 전만 해도 연준 정책 결정권자 대다수는 최소 3년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 주 발표된 전망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놓은 사람은 전체의 3분의 1도 채 안 됐고 내년 말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이들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이 약속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일자리 회복이 여전히 요원한 가운데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이 새로운 프레임워크에서 벗어나 과거처럼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고용을 희생시키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재무부 관리를 역임한 네이션 시츠 PGIM 픽스드인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빠른 물가 상승과 예상보다 더딘 고용 반등에 관리들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다"며 "연준의 프레임워크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 내 의견이 판데믹 때보다 더 갈릴 것"이라며 "프레임워크에 충실하면서 관련 리스크와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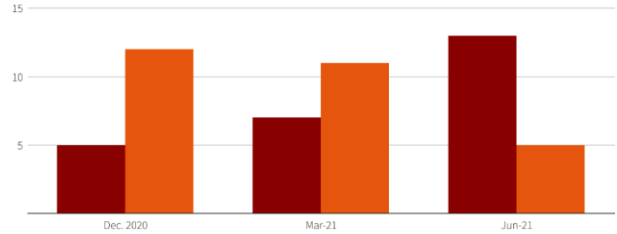
파월 의장 등 연준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 고용 회복을 지원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음을 여전히 확신하고 있는지는 한국시간 23일로 예정

된 파월 의장의 하원 증언을 시작으로 향후 몇 주간 큰 관심을 받는 주제가 될 것이다.

**Pulling the plug on patience?**

A faster economic recovery and stronger inflation has prompted Fed officials to change their outlook for an initial interest rate increase in forecasts issued in December, March and June.

● Liftoff before end 2023\* ● Liftoff after 2023



Note: \*An eighteenth official joined the Fed in December but not in time to submit economic forecasts at the December meeting.  
Source: U.S. Federal Reserv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시험대에 오른 연준의 약속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도 일정 기간 이를 수용하며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다.

금리가 낮고 소비가 확대될 때 고용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에 연준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10년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밑돌았던 것을 만회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이른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2% 목표치에 다가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2022년 금리 인상을 전망한 관리 7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볼러드 총재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해 3%, 내년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른 동료들은 (더 낮은 금리 인상을 정당화하는) 다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2년 (인플레이션) 전망과 관련해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쟁을 통해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관리들 각자가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을 얼마나 용인할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연준이 얼마나 빨리 대응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도 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금리에 민감한 자동차, 주택 건설 등 주요 산업에 중요한 사안을 다루지 않고 있으며, 물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급등할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가계에도 답변을 주지 않는다.

연준 이사를 지낸 랜달 크로스너 시카고 부스비즈니스스쿨 교수는 가계가 보기에 물가는 이미 "눈에 띄게" 급등했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은 인플레이션이 3년간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연준 스탠스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뒤집는 것은 아니었으며, 경제활동 재개 속 매우 복잡한 지점에 새로운 프레임워크 적용시 나타나는 리스크와 한계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3년간 지속되더라도 참을 수 있는가"라며 "연준은 (이와 관련해) 분명했던 적이 없으며, 과거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 ◆ 필립스 커브의 귀환?

파월 의장과 연준 관리들은 조금하게 행동하지 않기 위해 전망치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주 정책회의에서는 전망, 특히 인플레이션 전망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볼러드 총재는 강한 인플레이션을 전망한 반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최소 2024년까지 저금리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까지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보는 등 대조적인 의견을 보였다.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최대 고용' 등 중요한 개념과 관련해 합의된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은 가운데, 연준 관리들은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간과하고 있는 요인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연준은 전략적 변화를 꾀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반비례 관계임을 나타내는 필립스커브를 중요시하지 않았는데, 지난주 파월 의장은 마치 실업률

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여전한 것처럼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년간 목표치를 계속 상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파월 의장은 "2023년까지 인플레이션은 자원 이용이 늘어난 영향에 상승하게 될 것이며, (자원 이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실업률이 낮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제 물가와 고용이 연준이 원하는 목표에 얼마나 빠르고 완전하게 도달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두 요소의 불협화음이 나타날지가 연준의 새로운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해질 것이다.

#### (초점)-8월 금리인상 가시권(?)..한은 총재 매파색 강화에 들쭉이는 이자율시장

서울, 6월 24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못 박으며 향후 경기와 물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자 채권시장 참가자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이 총재가 점진적 조정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경기 회복세와 물가, 금융 불균형 진행 정도, 코로나 변이 확산 등 변수를 보고 결정하겠다고며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채권 투자자들의 계산식도 복잡해졌다.

현시점에 이 총재가 어느 때보다 명백한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준 만큼 당초 컨센서스였던 올해 11월보다 정책 조정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빠르게 늘고 있다.

24일 이자율스왑(IRS) 6개월물 금리는 이날 이 총재의 물가안정목표 점검 설명회 이후 0.7775%까지 오르며 전날(0.745%)보다 3.25bp 상승한 수준에 거래됐다. 현재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0.66%이고 IRS 6개월물의 CD 픽싱이 9월에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시장이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해가고 있다는 의미다.

A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7월 금리 인상 소수의견은 확실하다고 봐야 할 듯하고 만약 두 명의 소수의견이 나오면 8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질 듯하다"며 "IRS 6개월물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8월 인상이 가시권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남다는 의미"고 말했다.

그는 "8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시장은선 일단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 경우 아무리 지금 시장금리가 통화정책 조정을 선반영했다고 해도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 증권사 채권 딜러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때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경우 연내 2회 인상에 대한 프라이싱 시도가 나타날 듯하다"며 "7월 금통위 회의 때 8월 인상 여부와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경계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코로나 19 상황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각각 한 차례씩 이 총재의 임기 중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이미 1.4%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오버슈팅은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단기채권을 무겁게 보유한 기관들의 추가 손절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C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내년 1분기까지 두 번의 금리 인상은 가능해진 것 같은데 연내 두 번 인상은 정치적인 논리 때문이라도 안 될 것"이라며 "7월 금통위 회의 때 소수의견이 나오고 8월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커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3년물 금리가 1.4%까지 왔고 저평가에 만기 현물가까지 생각하면 지금 3년 선물을 안 사는 게 이상하다"면서도 "다만 이 포지션으로 3개월을 버텨내야 한다는 게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D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상황"이라며 "올해 4분기에 한 번, 내년 1분기에 한 번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감안하면 여기서 시장금리가 더 오르는 건 오버슈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아직도 단기물 헤지가 불충분한 곳들이 있어 추가적인 오버슈팅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 은행 운용팀장은 "지금 누군가는 손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장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다만 3년물 금리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과도해 보이는 만큼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 (시장진단)-원화, 위안 보폭 커질 때마다 연동성 더 뚜렷..위안 전망 기운

서울, 6월 2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6월 정책회의 이후 국제 외환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위안화와 이를 따르는 원화 보폭도 함께 커졌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연준 정례회의에서 예상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 강한 매파 시그널을 보낸 게 최근 시장 변동성을 자극한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미국 단기 채권금리는 상승하고 글로벌 달러는 강세 전환했다.

이같은 대외 흐름 변화에 강세압력을 저울질하던 달러/위안은 방향을 위쪽으로 돌렸다. 5월말 6.36 위안까지 하락했던 역외 달러/위안은 현재 심리적 저항선인 6.5 위안 상향 돌파 가능성을 저울질 중이다.

이러한 위안화의 뚜렷한 방향 선회에 원화는 약세 변동성을 키우며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달 초 위안 강세 모멘텀에 기대 박스권 하단인 1110 원을 일시 하회하기도 했던 달러/원은 현재 박스권 상단인 1140 원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최근 20 영업일 간 위안화와 원화의 상관도는 0.9를 넘을 만큼 강한 동조화를 보였다.

#### ▲ 위안 포지션 조정 때 흔들리는 원화

전날 달러/원 상승에 역내 결제수요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지만, 역외 발 강한 숏 커버가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A 시장 참가자는 "연준 회의 이후 미국 단기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가 달러/위안 숏 커버링을 촉발시켰고, 달러/원에 대해서도 연쇄적인 숏 커버가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위안화 방향이 달라질 때는 원화도 어김없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변동성을 키운다.

이달 초 미국 채권금리 하향 안정 속 달러 약세 여건이 마련되자 수익률을 쫓기 위한 중국 자산에 대한 외인 자본 유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에 위안화는 강세압력을 높였다. 이때 원화는 덩달아 절상압력을 높였다.

B 시장 참가자는 "위안화가 크게 움직일 때는 일부 역외 펀드들은 원화처럼 위안화와 연관성이 깊은 통화들을 함께 거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 위안 전망 기운

6월 연준 회의가 촉발한 일차적인 포지션 조정이 일단락됐다면 위안화와 원화의 상관성은 잠시 완화될 수도 있다.

C 시장 참가자는 "위안화 관련 포지션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면 원화는 펀더멘털 여건과 수급 이슈로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준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속 위안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두고 당분간 시장은 경계태세를 높일 전망이다.

달러/위안이 6.5 위안을 딛고 올라선다면 달러/위안에 대한 강세 전망은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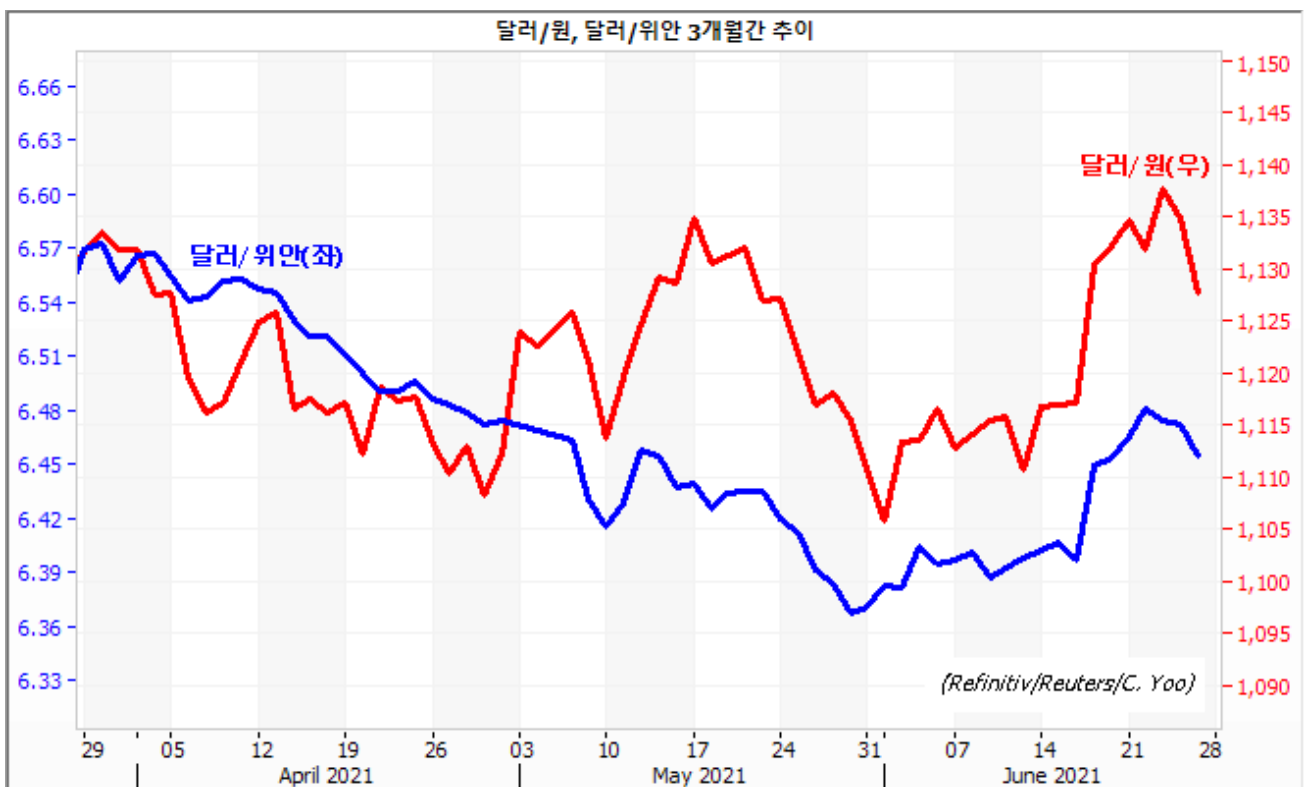
소시에테제네랄은 이머징 마켓 보고서에서 "경제활동 정상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 세계 수요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성장 측면에서 중국 소비 회복은 수출 완화를 상쇄하기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통화 긴축은 (일단 시작되면) 중국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4분기 또는 그 이전 위안화 약세 전환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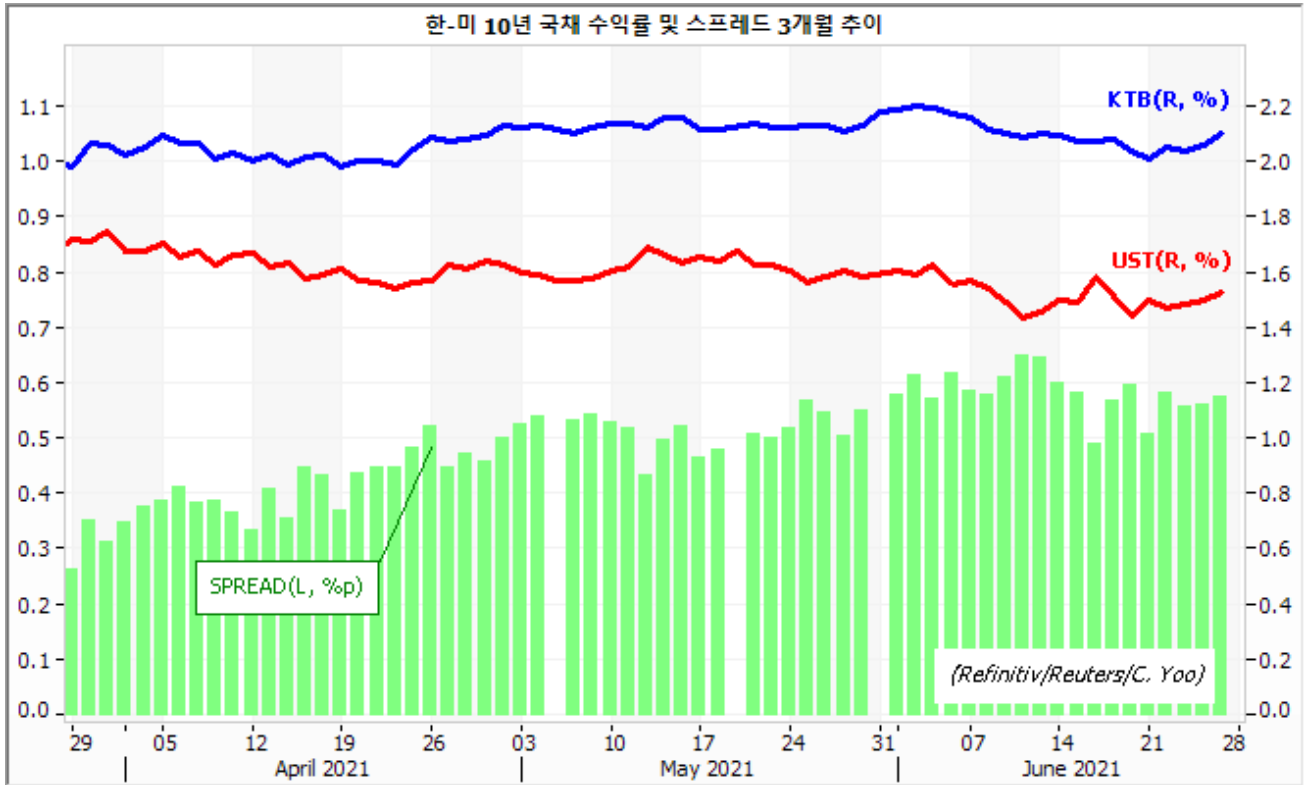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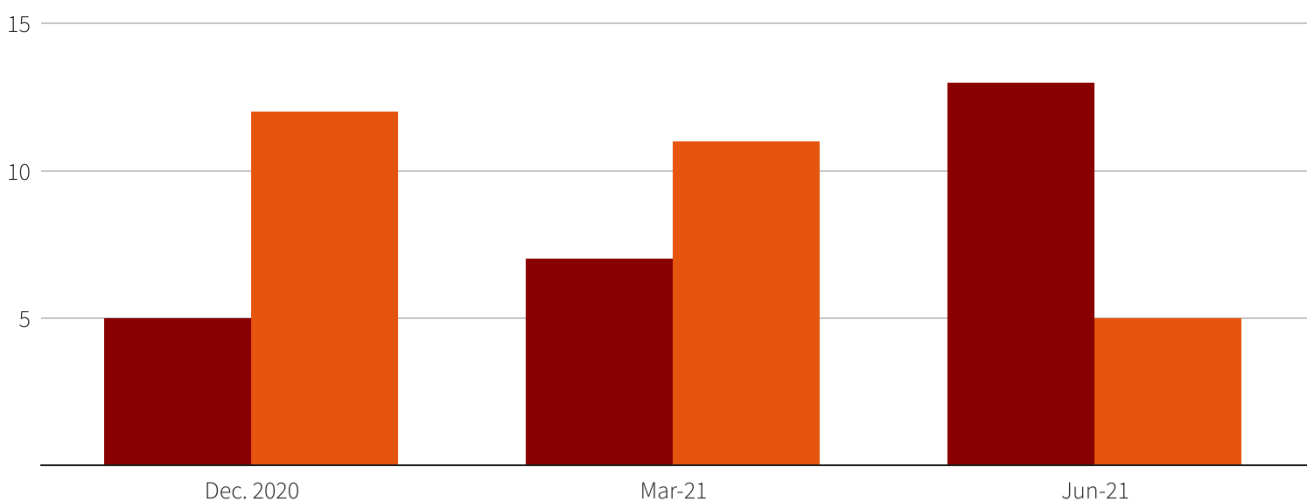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Pulling the plug on patience?

A faster economic recovery and stronger inflation has prompted Fed officials to change their outlook for an initial interest rate increase in forecasts issued in December, March and June.

- Liftoff before end 2023\*
- Liftoff after 2023



Note: \*An eighteenth official joined the Fed in December but not in time to submit economic forecasts at the December meeting.

Source: U.S. Federal Reserv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